

간호법?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있는데요?

민국병원 보건의료인력 이보건씨 (40세)





**역할을
명료하게!
책임도
분명하게!**

**간호법은 의료법 내
모호한 의료행위와
보건의료인력 간
역할 및 책임을 명료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약은 약사에게,
간호는 간호사에게!



간호법은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관례처럼 자행되던
간호사와 여러 보건의료 직역에 대한
불법 역할 위임과,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합법화 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전한
의료행위 보장!

간호법은 치료 중심 모델에서 예방 재활 모델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향상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시작합니다!

일차보건의료의 내용과 보건의료인의 역할 수행 명시

[비전]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회 실현

정책 목표	주요 성과 지표 (현재 → '25년~)
①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치료가능사망률 및 지역 격차 감소 (10만 명 당 43.8 → 30.7명 5분위 격차비 1.41 → 1.27배)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 (지역 공공병원 병상 1만 → 1.5만+α개)
② 양질의 적절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지역책임의료기관 의료인력 확충 (기관별 평균 전문의 30 → 40명 간호사 150 → 200명) 인턴·레지던트 수련 지방의료원 확대 (7개소 → 20개소)
③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	중양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 위원회 운영 (1개 지역 → 중양 및 17개 시·도별 구성)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전국 설치 (13개 → 17개 시·도)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상생하는 의료 현장.
협력하는 보건의료인력.

공고한 팀워크로
의료의 힘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함께** 지켜요!

